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북섹션을 만들자”

한준상 |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요즘 세계성인교육학회는 모든 이를 위한 글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성인들에게 하루에 한시간씩 책읽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비타민의 복용이 필요하듯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한시간의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운동의 일환으로 이 학회가 신문의 북섹션 읽기를 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안간 책읽기가 서먹서 먹하면, 신문의 북섹션으로 시작하라는 것이 그들의 주문이다.

서평이나 신간서적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한 지적인 비타민이 될 수도 있다. 서평란을 잘만 이용하면, 책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 글줄기를 따라잡기도 손쉽게 된다. 책 내용을 다루는 기자들의 글솜씨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다루는 책의 종류도 다양해서 예전같은 역겨움도 적어졌다. 사정이 그렇기는 해도, 조금 흠이라면 너무 흥미 중심, 교양 중심의 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신문의 속성상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해도, 이런 점들은 우리 신문이 계몽주의 정신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신문의 북섹션이 좀더 독자편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책 소개란에 무슨 책을 소개할 것인지는 완전히 기자나 편집자들의 일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 요즘 독자들은 신문지면에 소개

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미 있는 신간서적으로 읽어주지 않는다.

독자에게 다가선 북섹션은 읽기 어려운 전문서적이라도 독자들이 접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학술지마저도 신간 학술서적에 대한 소개나 서평에 지면을 할애하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일반 신문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그러니까, 전문서적은 일반 신문에서는 너무 전문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외된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에서 전문서적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독자를 생각하는 북섹션이라면,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서적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써 주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신간서적의 소개나 서평의 쌍방향운동이 신문의 북섹션에서 생활화돼야 한다. 그래야 책읽기의 독자적인 즐거움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쌍방향 책읽기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독자들에게 무슨 책이 읽고 싶은지, 무엇을 읽어보니 무엇이 어땠는지 서로 물어보고 서로 권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서로 커나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기자의 상식수준에서 소화가 안되면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를 활용하면 쌍방향 책읽기는 좀더 손쉬워진다. 이를 위해 외국의 신문 북섹션에는 수십명의 교수들이 일반독자를 위한 고정 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이야 어떤 것이 되든 관계없이, 모든 이를 위한 북섹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문도 ‘쌍방향 책 읽고 소개하기’ 같은 일을 본받아볼 만하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